

폐기물을 활용한 패션 소품 개발 선행연구

강하은[○], 문세라*, 장연주*, 차수정*

[○]목포대학교 패션의류학과,

*목포대학교 패션의류학과

e-mail: haeun@naver.com[○], sseerraarrrtt@naver.com*, jang14285@naver.com*, carollain@mokpo.ac.kr*

A Prelimina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ashion Accessories Using Waste

Ha-Eun Kang[○], Se-Ra Moon*, Yeon-Joo Jang*, Su-Joung Cha*

[○]Dept. of Fashion and Cloth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Dept. of Fashion and Cloth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 요약 ●

본 연구는 폐그물, 폐현수막, 비닐, 캔 등을 활용한 친환경 패션 소품을 제작하기 위한 선행연구로, 패션산업에서의 환경문제와 친환경 패션 브랜드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친환경 패션 소품 제작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연구는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친환경 패션 브랜드’, ‘패션산업의 환경오염’ 등의 단어를 입력하여 검색되는 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패션산업은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수질, 대기오염을 유발하며, 쓰레기 문제 등을 유발하였다. 제조과정 중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발생시키며, 세탁과정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을 방출하여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패션 브랜드에 글로베 호프, 프라이탁, 스텔라 맥카트니, 파타고니아, 비건 타이거, 닛 이웬스 등이 있다. 광고 현수막, 군복, 안전벨트, 공장작업복, 병원 이불, 보트의 돛, 자동차 방수포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가방, 파우치, 핸드백 등의 패션 아이템을 제작 판매하고 있다. 이 외에도 비건 소재를 사용하고 동물성 소재와 PVC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 패션업계에서도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폐기물(waste), 환경오염(environmental pollution), 패션(fashion), 소품(Accessory)

I. Introduction

유럽연합(EU)은 패스트 패션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2030년까지 재활용 섬유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힌 바 있다[1]. 이에 따라 우리나라 패션업계에서도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리사이클링 및 생분해 소재를 사용한 제품과 화학물질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산과정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 최근 들어 MZ세대는 개인의 행복, 공유, 사회적 가치나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표출하는 ‘미닝아웃(Meaning out)’ 소비를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미닝아웃의 대표적인 소비트렌드가 ‘친환경’으로, 제로웨이스트, 폐기물을 재활용한 업사이클링,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 저탄소 제품이 그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폐그물, 폐현수막, 비닐, 캔 등을 활용한 친환경 패션 소품을 제작하기 위한 선행연구로 패션산업에서의 환경문제와

친환경 패션 브랜드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친환경 패션 소품 제작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II. Method of Study

본 연구는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기사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포털사이트에 ‘친환경 패션 브랜드’, ‘패션산업의 환경오염’ 등의 단어를 입력하여 검색되는 기사를 추출하였다. 이를 분석하여 패션산업에서의 환경문제, 친환경 패션제품에 활용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가공방법, 디자인 및 제작방법 등을 정리하였다. 또, 검색된 친환경 패션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분석하였다.

III. Result

1. Environmental pollution in the fashion industry

패션산업은 환경을 파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패션은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쓰레기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산업은 연간 약 1조 5천억 톤의 물을 염색과 가공 공정에서 소비한다. 이 과정에서 버려지는 물이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정에서 매년 최소 30kg의 흰 옷을 배출하게 되어 쓰레기를 만들어내게 된다. 또, 합성섬유로 제작된 의류를 세탁할 때 약 1,900개의 극세사 섬유가 물에 방출되어 매년 200,000톤의 미세플라스틱이 바다에 축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섬유를 생산하기 위한 목화 재배를 위해 엄청난 양의 화학비료를 사용하게 되어 토양을 황폐화시키고 자연적인 활력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화 재배뿐만 아니라 모섬유를 얻기 위한 양을 기르는 것도 토양 황폐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패션산업은 제조 및 운송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배출시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나일론, 이크릴 및 폴리에스터와 같은 합성섬유의 생산은 이산화탄소 뿐만 아니라 일산화이질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구온난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Fashion brand of eco-friendly

지속가능한 패션에는 비건 패션(vegan fashion), 업사이클-리사이클 패션, 컨셔스 패션(conscious fashion) 등이 있다. 친환경 패션 브랜드로 글로베 호프, 프라이탁, 스텔라 맥카트니, 파타고니아, 비건 타이거, 낫 아워스 등이 있다. 글로베 호프(Globe Hope)는 2001년 헬싱키에서 세이아 루갈라(Seija Lukkala)에 의해 론칭된 브랜드로 광고 현수막, 군복, 안전벨트, 공장작업복, 병원 이불, 보트의 돛을 활용하며 유기농 섬유를 함께 사용한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군용품으로 제작된 가방과 파우치가 있으며, 다양한 의류, 가방, 핸드백, 파우치 등을 제작 판매하고 있다.

친환경 재활용 브랜드 프라이탁(Freitag)은 마커스 프라이탁과 다니엘 프라이탁에 의해 1993년 설립된 회사로, 버려진 현수막이나 자동차 방수포 등을 활용하여 패션 소품(파우치, 지갑, 가방)으로 재활용한다.

스텔라 맥카트니(Stella McCartney)는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베지테리언 슈즈, 비건 드레스 등을 제작하며, 2017년 쓰레기 매립지에서 화보촬영을 하며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파타고니아(Patagonia)는 1973년 등반기이자 서퍼인 이본 슈나드가 설립한 친환경 글로벌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로 의류 회사임에도 환경을 위해 옷을 사지 말라는 광고로 주목을 받았다. 친환경소재만 사용하여 의류를 제작하며 옷을 새로 사지 말고 수선해서 오래 입자는 슬로우 패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낫 아워스(Not Ours)는 ‘우리의 것이 아닌’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동물 착취 없는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한 국내 브랜드이다. 모든 제품 소재에서 동물성 소재와 환경에 유해한 PVC 소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패스트 패션의 대량생산 방식을 택하지

않고 프리오더 방식을 통해 재고를 줄이며, 포장재를 생분해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친환경 패션 소품을 제작하기 위한 선행연구로 패션산업에서의 환경문제와 친환경 패션 브랜드에 대해 분석해보고 이를 통하여 친환경 패션 소품 제작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는 새로운 패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패션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환경을 살리는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1] S. Kim, ‘Fast fashion, that’s enough’.. Changwon city campaign for carbon neutralization,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1140400052?input=1179m>
- [2] Y. Kang, "Let's get rid of the stigma attached to environmental pollution." Fashion industry, eco-friendly products one after another,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6/504078/>